

# 아름답게 치장된 동화 이면에 가려진 욕망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동화경제사**  
최우성 지음

‘피노키오의 모험’, ‘걸리버 여행기’, ‘로빈슨 크루소’, ‘성냥팔이 소녀’, ‘80일간의 세계일주’, ‘플랜더스의 개’, ‘엄마 찾아 삼만리’ 등...  
어린 시절 누구나 한번쯤 읽었을 동화들이다. 당시 동화책은 학급 문고나 대부분이었다. 표지가 해질 대로 해진 책들은 ‘계몽동화’라는 이름으로 비치되어 있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나 출판 수준을 고려하면 이해되는 대목이었다.  
그러나 책을 읽고 나면 꼭 ‘하기 싫은’ 과제가 주어졌다. 독후감 쓰기나 바로 그것이었다. ‘근대화’, ‘조국 산업의 기수’, ‘말공통일’ 등의 구호가 난무하던 시절의 교육은 대부분 주입식이었다.  
교장 선생님의 훈화와 훈시, 그리고 교훈이 강조되는 동화책 읽기 등은 지금의 기성세대에게는 익숙한 모습이었다.  
‘국민학교’ 때 읽은 동화 가운데 ‘로빈슨 크루소’라는 책이 있다. 영국 작가 다니얼 디포가 쓴, 한 남자의 파란만장한 무인도 표류기를 형상화한 동화다. 극한의 환경에서 생존한 인간의 모험담은 많은 이들에게 감명을 주었다.  
그러나 과연 감명과 교훈 코드로 ‘로빈슨 크루소’를



로빈슨 크루소·걸리버 여행기...  
기존 시각과 변별된 ‘다르게 읽기’  
자본주의의 민낯 예리하게 파헤쳐

해석해야 할까. 40~50년 전 동화책 읽기 방식으로는 그것이 ‘상식’이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예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화를 본다는 것은 흐름과 맞지 않다.  
동화에 ‘경제’를 결부시켜 새롭게 해석한 책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일간지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최우성 씨가 펴낸 ‘동화경제사’는 동화를 통해 당대 현실을 들여다보고 시대에 따른 경제의 흐름을 쫓는다. ‘돈과 욕망이 넘치는 자본주의의 역사’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돈과 욕망에 휘둘리는 인간의 모습을 동화를 통해 들여다본다.  
책에 수록된 15편의 이야기는 저자가 어린 시절 읽었던 그리고 부모가 됐을 때 아이와 함께 읽었던 시각과는 다른 차원의 읽기의 산물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겨레’ 토요일판에 ‘최우성의 동화경제사’라는 제목으로 실린 연재물에서 비롯됐다.  
‘다르게 읽기’는 아름답게 치장된 동화 이면에 감춰진 다른 면을 들춰낸다. 예를 들면 이렇다. 앞서 언급한 ‘로빈슨 크루소’에 대해 저자는 아일랜드 작가 제임스 조이스의 ‘대영제국의 진정한 상징이자 영국 식민주의의 전형’이라는 평을 소개한다. 그러면서 “‘로빈슨 크루소’는 탐험과 팽창, 정복과 지배로 일룩진 유럽 자본주의의 탄생사를 정확하게 그려낸 교과서에 가깝다”고

분석한다.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에 대한 ‘다르게 읽기’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화의 대가 줄거리는 이렇다.  
제비 한 마리가 동상 위에서 쉬다가 행복한 왕자의 눈물을 본다. 동상은 제비에게 자신을 도와줄 것을 부탁한다. 그러자 제비는 칼자루의 루비와 눈에 박힌 사파이어를 가난한 이들에게 가져다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저자는 세상은 왜 변하지 않고 불행한가라고 반문한다. 산업혁명 뒤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을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난과 질병, 빈부 격차는 자선활동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논리다.  
“물질문명은 나날이 발전해 갔으나, 정작 불평등은 확대되고 사람들의 삶은 더욱 비참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걸리버 여행기’를 바라보는 시각도 기존의 그것과 다르다. 걸리버가 여행 중 만난 브로브딘국의 왕은 어떻게 영국 정부가 조세수입보다 많은 지출을 할 수 있었는지 묻는다. 그것은 현대사회 국가 채무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이기도 하다.  
이밖에 은화 한 닢이 없어 원하던 그림을 보지 못한 ‘플랜더스의 개’의 벨로의 이야기, 나치의 전사로 다치 태어난 꿀벌 마야의 이야기를 담은 ‘꿀벌 마야의 모험’도 새로운 시각을 선사한다.  
<인물과사상사·1만5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약력**  
소설가인 박성천 기자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국문과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에 출강중이며 소설집 ‘메스를 드는 시간’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저자는 ‘동화경제사’에서 독자들에게 친숙한 15편의 동화를 통해 돈과 욕망에 휘둘리는 인간의 모습을 면밀하게 들여다본다. 사진은 동화의 다양한 이미지.

## 이정우 지음 ‘세계철학사 2’

지난 2011년 철학자 이정우는 3부작으로 구성된 역사 ‘세계철학사’의 첫째 권 ‘세계철학사 1: 지중해세계의 철학’을 펴냈다. 당초 1년에 한 권씩 3년에 걸쳐 완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번에 1권 이후 7년 만에 둘째 권 ‘세계철학사 2: 아시아세계의 철학’을 발간했다.  
한국 철학자가 쓴 최초의 세계철학사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다. 저자가 세계철학사를 쓰고자 한 데에는 단순히 철학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에 있지 않았다. “비서구를 전근대로 보는” 편견을 타개하고 허울 좋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넘어 진정한 보편성을 찾고자 하는 의욕이 강했다고 한다. 특정 문명과 언어권에 갇혀 있던 반쪽 사유만을 배태했던 기존 철학사를 극복하고 “객관성과 보편성에 한발 더 가까이 간 진정한 세계철학사”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2권에서 동북아와 인도의 철학을 살펴본다. 인도 자체의 맥락을 놓고 볼 때 인도 철학은 인도-유럽어라는 언어적 측면에서나, 논리학·인식론의 발달 같은 사유의 양태에서나 지중해세계의 철학에 가깝다고 본다. 그러나 철학사적 전개 과정을 볼 때 인도철학(핵심적으로 불교)은 동아시아로 전파된 세계의 일부로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2권의 특징은 ‘비교철학’의 성격이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개별적인 비교 연구가 아니라 지중해세계의 철학과 아시아세계 철학을 전체적으로 비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물론 아시아세계 내 여러 철학 전통들 사이의 비교도 있지만 아시아세계의 철학 전체를 지중해세계의 철학과 비교하는 것이 핵심이다.  
<길·4만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이덕일 지음 ‘우리 안의 식민사관’

왜 아직도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역사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은 오랫동안 이 문제와 싸워온 강단 있는 역사학자이다. 지난 3년 동안 이덕일 소장은 지난한 법정 소송에 휘말려 적잖은 고충을 감내해야 했다. ‘우리 안의 식민사관’ 본문에 식민사학자로 언급된 모 교수가 명예훼손으로 걸고 책도 출판금지 가져본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3년 만에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책의 출판금지 가져본 신청 결정도 취소된 것이다. 이번에 이덕일 소장이 펴낸 ‘우리 안의 식민사관’은 지난 3년간의 지난한 법정 투쟁까지 덧붙인 개정판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 안의 식민사관’은 문제가 됐을까? 해방 7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강단 사학계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식민사관에 대한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비판을 했다는 주 원인이었다. 조선총독부 관점 vs 독립운동가 관점. 우리 역사를 읽는데 두 가지 관점이 있다면 어떤 관점에서 한국사를 배우고 해석해야 하는가.  
두 관점의 가장 큰 논점은 2가지다. ‘한사군의 위치는 어디인가?’와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라는 주제가 바로 그것이다. 조선총독부 관점, 다른 말로 하면 식민사관이라 불리는 관점은 한사군의 위치가 한반도이고,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부정하고 고대에 한반도 남부를 일나일본부가 지배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안의 식민사관’은 조선총독부의 관점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바라보고 그 관점을 전파해온 식민사학자들을 실명 비판한다.  
<민권당·2만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천모 지음·홍민경 옮김 ‘공자에게 사람됨을 배우고...’

중국 춘추 시대 때 사상가이자 학자로 활약한 성인 공자와 삼국 시대 때 정치가이자 군사가로 활동한 영웅 조조.  
‘공자에게 사람됨을 배우고 조조에게 일하는 법을 배우다’는 성인 공자가 통찰한 사람됨의 도와 영웅 조조가 체화한 처세의 도 등 크게 2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평론가 겸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중국의 작가인 저자 천모는 이를 통해 매력적인 인품을 기르는 방법과 사회적 성공을 이끄는 처세의 기술을 총 66 챕터에 걸쳐 제시한다.  
삼편 ‘공자에게 배우는 사람됨의 도’는 성인이 갖추어야 여섯 가지 덕목의 중요성,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 필요한 덕목 및 그 실행 방법, 바른 언행과 솔선수범의 정신, 호연지기의 인생 자세, ‘수신(修身)’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인간관계의 길, 인생살이에서 스스로 가져야 할 마음가짐 및 자기반성 등 총 37 챕터에 걸쳐 내면의 인격 수양법을 오늘날의 실제 사례와 접목하여 다룬다. 이를 통해 누구에게나 끌리는 매력적인 인품을 기르는 법을 현실적으로 알려준다.  
하편 ‘조조에게 배우는 처세의 도’는 상황에 따른 ‘능능능신(能而能神)’의 용통성, 조직을 이끄는 리더 마인드, 지속적인 노력을 중시한 ‘절차타마(切磋琢磨)’ 정신, 자존감에 거대한 결단력 및 실행력, 다양한 인재 활용법,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통찰력 및 대처법, 국면을 뒤집는 냉철한 전술 활용법 등 총 29 챕터에 걸쳐 성공을 담보하는 처세 기술을 오늘날의 실제 사례와 접목하여 다룬다.  
<정민미디어·1만5000원>  
/ 천은제기자 ej6621@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2017-2018  
신양파크호텔

# 겨울이야기

**객실패키지** | 2017.12.1 ~ 2018. 2. 28

- 스탠다드룸 ₩ 80,000
- 디럭스룸 ₩ 90,000
- 조식별도 1인 15,000 / 세금포함 -

**설연휴패키지** | 2018. 2. 14 ~ 18 (5일간)

고향을 방문하시는 고객님의 위한 특별한 선물!

- 스탠다드룸 ₩ 60,000
- 조식별도 1인 ₩12,000 -

**연회장 할인축제** | 2018. 1. 1 ~ 3. 31

웨딩, 각종 가족모임 및 기업체 세미나 등 출장파티를 포함한 당 호텔 연회 행사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혜택 : 식료 10%, 음주류 30% 할인

**신양파크호텔** 예약 및 문의 객실 ☎ 062) 228-8000 연회 ☎ 062) 228-4711~2